

ESG 생태계 구축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2021 환경재단·매일경제 공동기획

제2기

ESG

리더십 과정

# Greetings

## 제2기 ESG 리더십 과정에 초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재단 최열입니다.

ESG, 지속가능경영, 사회적 가치 등 한참 전에 나온 용어이지만 최근 매일 언론에 등장하고 이 불안한 사회에서 뜨거운 이슈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속에서 전 지구가 살아남기 위한 공동체 의식이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구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와 코로나 팬데믹 등과 맞물려 선진국을 중심으로 ESG 규제가 보다 빠르게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넷제로(Net Zero)와 RE100(신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선언했고, 유럽 등 선진국에서 ESG 공시를 의무화함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들도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 경영의 큰 패러다임도 전환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유럽에서 200여 년 걸린 산업화를 우리는 반세기 만에 이뤄냈지만 그 결과 에너지 과소비 국가로서 심각한 환경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기술이 있고, 변화에 언제나 신속하게 대응해왔습니다. 본 과정은 정부, 기업, 전문가들과 함께 힘을 모아 중장기 확실한 목표와 전략으로 ESG 모델을 정착시키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환경재단은 매일경제와 함께 국내 최고 전문 강사진을 구성하여 국내 최초 ESG 리더십 과정을 준비하였습니다. 글로벌 ESG 규제리스크 점검 및 여러분들과 함께 ESG 표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더불어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강한 경제가 나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이 과정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일경제신문 장승준입니다.

우리는 지금 ESG로 향하는 패러다임 대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ESG가 일시적 유행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입니다. 지구촌 구성원들이 다 함께 공존하려면 친환경, 사회적책임,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주주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다 기후변화 리스크까지 부각되면서 지구의 지속가능성은 인류 당면 과제가 됐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래리 핑크 회장이 연례 서신을 통해 '넷제로'와 관련한 사업계획을 밝히라고 주요 기업들에게 요구하거나 EU가 2018년부터 환경·사회·노동·인권·반부패 등에 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것은 ESG의 불가피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국에서도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2025년부터 친환경(E)·사회적 책임활동(S)을 포함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해야 합니다.

최근 많은 대기업과 금융회사들이 ESG경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ESG 조직을 만들고 이사회에 ESG위원회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ESG가 선택이 아닌 기업 생존의 핵심 키워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환경재단과 매일경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모시고 지난 3월부터 10주간 제1기 ESG 리더십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최고경영자를 위한 국내 최초의 ESG 리더십 과정에 60여분이 참석해주셨고 모든 과정을 순조롭게 마쳤습니다. 제2기 ESG 리더십 과정 또한 대한민국 리더들께 ESG 경영 비전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세계 최고의 지식경제신문을 추구하는 매일경제는 ESG 리더십 과정의 성공적 행보를 위해 정성껏 발을 맞춰나가겠습니다.

# Feature

## 환경재단과 매일경제가 공동 주최하는 ESG 리더십 과정

기업경영의 큰 패러다임 전환 시기에 맞춰 대한민국의 ESG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 기업, 전문가, 대학, 시민사회 등 각 분야의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ESG 규제리스크 점검, ESG 모델 구축 등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입니다.

## 과정 목표

-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함께 번영하는 공동체 구축을 위한 노력
- 글로벌 ESG 경영 비전 수립 및 구체적인 실행 전략 모색을 위한 사회적 학습, 네트워크 형성

## 과정 특징

###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

- 정부, 기업, 전문가, 학자, 예술가, 시민사회 등 각 분야 리더들의 협력적 연결망 구성
- 국내외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강사진
- 과정 이수 후 기수별 원우회를 통한 후속 학습

### 사업화 전략 기회

- 최고 전문가들이 전하는 국내외 최신의 내용 학습
- 강의, 워크숍 그리고 사례공유
- 참여자 네트워크를 통한 융·복합 협업 기회 모색

2050 탄소제로 시대를 맞아,  
각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여 그린리더로  
한 발자국 나아가는 길에 환경재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 Advantages

## 국내 최초 ESG 최고위 10주 과정 및 2박 3일 현장 워크숍

환경재단은 2008년 2월 18일, 산업자원부·대한상공회의소 등 21개 기관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3차 기후변화 주간부터 이미 탄소중립 개념을 도입했고,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그린리더가 세상을 바꾼다’는 신념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생명의 가치를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그린리더’를 육성해왔습니다.

환경재단과 매일경제가 공동주최한 “ESG 리더십 과정”은 2021년 3월 국내 최초로 개설된 최고위 과정으로 국내외 최고 수준의 강연, 현장 체험, 원우 사례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국내외 최고 전문가 강사진

본 과정은 E(환경 Environment), S(사회 Social), G(지배구조 Governance) 각 영역의 국내외 최고 강사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본 과정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차별화된 강연과 국내외 최신동향 등 트렌드가 반영된 10주의 커리큘럼은 “ESG 리더십 과정”만의 장점입니다.



주한 영국대사  
사이먼 스미스



2050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윤순진

# Advantages

## 주임교수의 최신 트렌드 소개

매주 강연마다 10분 포커스 시간을 통해 ESG와 환경 분야의 최신 동향과 주요 사례를 주임교수가 소개해드립니다.



### 윤덕찬

주임교수

지속가능발전소 대표이사  
前 LG 환경연구원 연구컨설팅 센터장  
前 산업자원부 연구원  
경희대학교 국제경제법 박사 수료  
경희대학교 법학과 학사, 국제환경법 석사

### 이미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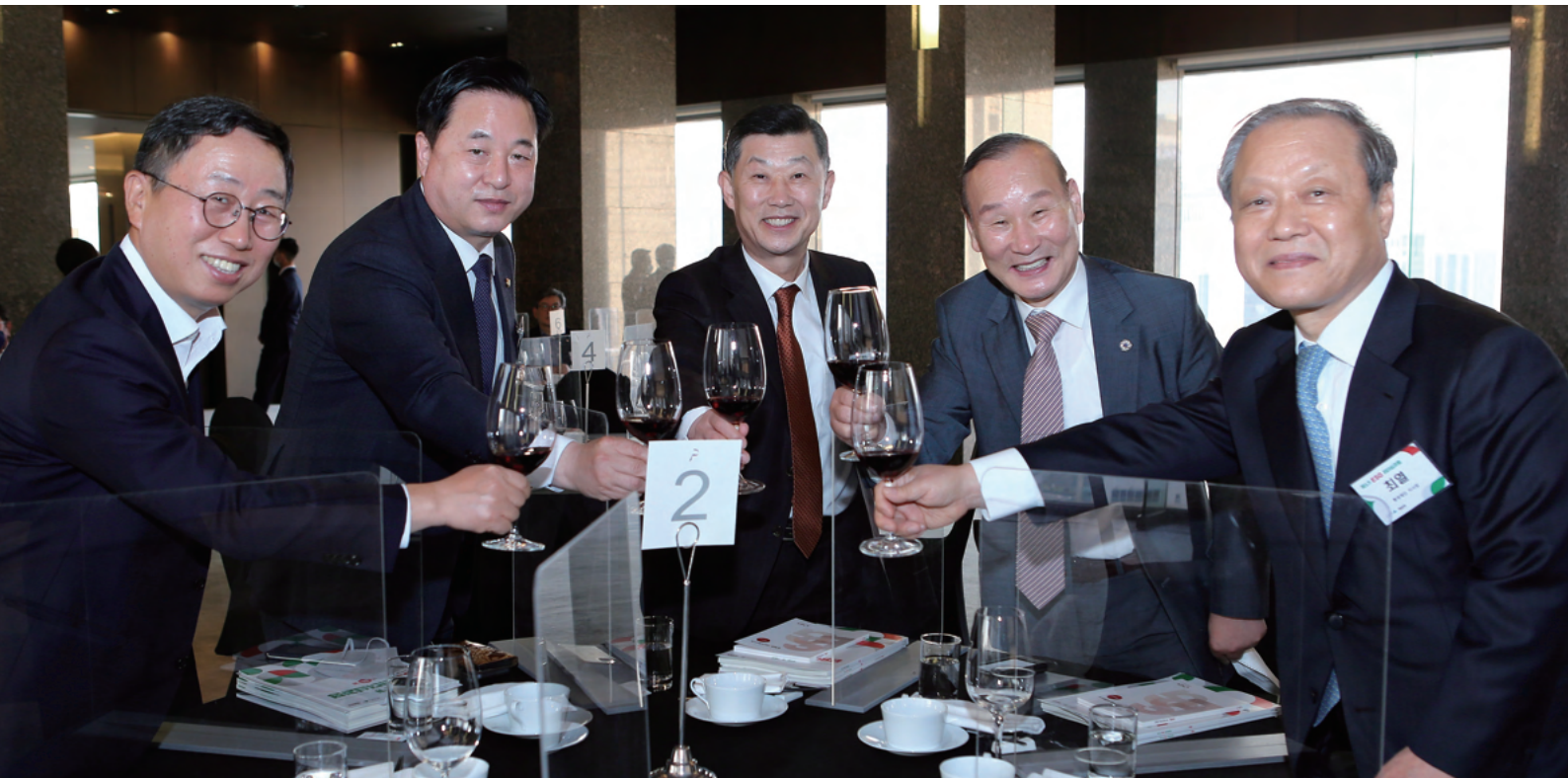
주임교수

환경재단 대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수소경제위원회 위원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석사, 학사  
본 과정 진행, ESG와 기후변화 주요 사례 소개

# Advantages

## 탄탄한 원우 네트워크

정부, 기업, 전문가, 학자, 예술가, 시민사회 등 각계 리더들이 기수별 원우회를 통해 교류하고 학습합니다. 또한 ESG 리더십 과정 동문회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

제1대 ESG 리더십 과정 원우회 회장 추천사

중견기업이 소홀히 할 수 있는 ESG를 공부할 수 있어 행운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힘들 때일수록 시름을 잊고 공부하는 것이 활력소였고, 전문가 강사님들의 열강 또한 생생합니다. 원우님들의 인연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 Application Guidelines

## 지원 자격

- ESG 경영을 내재화하고 신사업을 발굴하려는 기업 최고경영자
- 한국형 ESG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입안 최고 공직자(국회, 정부, 지자체)
- 지속가능 금융과 책임투자를 통해 ESG 활성화에 앞장서는 금융기관장
- 기후변화 등 다양한 사회적 과제별로 해법을 모색하는 학계 및 시민단체 대표
- 글로벌 ESG 규제리스크를 점검하고 ESG 표준화를 지원하는 법률가 등

## 과정 개요

기간	2021년 9월 9일(목) ~ 11월 18일(목)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 9시
장소	서울 더 플라자 호텔(중구 소공로 119)
주최	환경재단, 매일경제
수업방식	강의·경영 사례와 최신저널 소개 및 토론 (만찬 포함) 현장 워크숍 1회, 강연 일부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정원	60명
참가비	1인 950만원 (워크숍 비용 포함, 동문회비 별도)
입금계좌	우리은행 142-311067-01-101 (환경재단) 기업은행 035-064530-01-052 (환경재단) (환경재단은 지정기부금 단체로 소득세법 34조, 법인세법 24조에 의거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안내

절차	신청서 이메일 접수 » 서류전형 » 합격자 발표 » 등록 ※ 신청서 환경재단 홈페이지(www.greenfund.org)에서 다운로드 가능
접수 마감	2021년 7월 30일 (금)
원서 접수	esg@greenfund.org

## 문의

사무국	ESG 리더십 과정 사무국
메일	esg@greenfund.org
전화	02-2011-4355, 4342, 4337



# Curriculum

일자	내용	강사명	소속 및 직함
<b>제2기 ESG 리더십 과정 개강식</b>			
1주차 9/9 (목)	축사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더불어 민주당 사무총장
	축사	최병오	패션그룹 형지 회장, 제1기 ESG 리더십 과정 원우회장
	〈기조강연〉 기후환경 위기시대, 기업의 도전과 기회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2주차 9/16 (목)	진정성의 시대	송길영	바이브컴퍼니 부사장
	ESG의 법제화, 산업계 발등의 불	임대웅	UNEP FI(금융 이니셔티브) 한국대표
3주차 9/23 (목)	기후위기의 오늘과 기업의 대응	조천호	경희사이버대 기후변화 특임교수
	ESG 투자와 기업경쟁력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4주차 9/30 (목)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의 의미와 당사국의 역할		주한 영국대사
	ESG 관련 국내외 분쟁사례	이윤정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5주차 10/7 (목)	ESG 경영의 글로벌 사례와 SK 추진현황 및 시사점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회 위원장
	〈현지특강〉 탄소제로 시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하는가	John Byrne	델라웨어대 에너지·기후변화정책 석좌교수, 에너지환경정책연구소(CEEP) 소장
현장 워크숍 10/14(목)~10/16(토)	<b>강원도 현장 워크숍</b>		
6주차 10/21 (목)	원우 사례 발표		
7주차 10/28 (목)	ESG Insight: focused on S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탄소중립을 위한 포스코의 ESG 경영 전략	김학동	포스코 사장
8주차 11/4 (목)	미국에서 바라보는 ESG 열풍	박용범	매일경제신문 뉴욕특파원
	국민연금 ESG 투자 전략과 방향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9주차 11/11 (목)	포용적 조직문화와 ESG	이은형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장
	ESG, 새로운 자본주의의 레버리지가 되다	윤덕찬	지속가능발전소 대표이사
10주차 11/18 (목)	<b>수료식</b>		
	세계사적 관점에서의 한국문화의 정체성	유홍준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본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Recommendations 가나다순



**강태선** BYN블랙야크 회장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지속가능경영 마인드입니다. 환경재단의 ESG 리더십 과정을 통해, 기업과 사회 모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더 나은 환경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권준학** NH농협은행 은행장

ESG 리더십 과정은 미래 한국 경제를 선도해 나갈 그린 리더 양성의 요람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와 비전을 공유하고 유기적인 소통을 통하여, 우리 사회·경제가 한 발자국 더 전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김두식** 법무법인(유) 세종 대표변호사

오늘날 비즈니스 리더들은 ESG의 실체를 알고 ESG에 기반을 둔 경영전략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환경재단의 ESG 리더십 과정은 학계, 업계, 관계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ESG 동향과 핵심 이슈를 제시하여 인상적이었습니다. CEO 및 리더들에게 환경재단 ESG 리더십 과정을 적극 추천합니다.



**김범준** 우아한 형제들 대표이사

ESG 리더십 과정을 통해 막연하게 이해하던 ESG 경영을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사회공헌을 넘어 치열한 경쟁 관점에서 ESG 아젠다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과정이었습니다.



**김종량** 학교법인 한양학원 이사장

ESG는 기업 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의 향방을 가를 척도이자,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Larry Fink 회장은 투자 기업들에 2050년까지 Net-Zero 추진계획을 밝혀달라고 요청했으며, 미국 '바이든 노믹스' 또한 ESG 경영이 핵심가치입니다. 착하고 건강한 조직 만들도록 '애쓰지'(ESG)!



**김홍국** 하림지주 회장

생태계 밖에서 홀로 존재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자연과 인간, 기업과 사회,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기업을 기업 밖에서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박순애** 한국행정학회 회장 / 서울대학교 교수

환경 행정의 전문가로서, 기후변화시대를 대비한 ESG 강의들 중 환경재단의 'ESG 리더십 과정' 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일동** 디섹 회장

막연한 기대감으로 수강 신청 하였으나, ESG에 대한 확고한 시대정신을 공부하여 가슴 깊이 감사했습니다. 훌륭한 강사진과 특히 다양한 논리 전개는 ESG에 대한 풍족한 지적재산이 될 것입니다. 이번 2기 ESG 리더십 과정에 꼭 놓치지 마시고 참석하시고 많은 양식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백진기** 한독 대표이사

현장에서 ESG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리더분들께 꼭 권하고 싶습니다. ESG 무림의 고수들이 매 강의 시간 한 마디씩 던지는 화두가 그동안 ESG를 체계화하지 못하고 방향을 몰랐던 리더들에게 ESG 리더십 과정은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봉욱** 변호사 봉욱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4차 산업혁명, 미·중 기술패권경쟁, 포스트 팬데믹, 기후변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거대한 변화의 물살을 헤쳐나가려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100년 이상 지속가능한 기업, 사랑받고 존경받는 기관이 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가치가 환경, 사회적 책임, 투명경영입니다.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환경과 사회를 고려하는 기업 경영은 코로나19의 충격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1기 과정을 수료하며, ESG와 관련된 교양과 사례 학습을 통해 의정활동에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ESG 리더십 과정은 사회 각계 리더들의 생각을 넓히고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국내외적으로 최근 화두인 ESG에 대해 최고의 전문가들로부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계 각층의 인사들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우리 사회의 도약을 이끌어낼 각계의 리더들에게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육현표** 삼성경제연구소 사장

기후 위기 대응은 이제 일상의 문제가 되었고 기업에서도 오랫동안 대안을 마련해왔지만 근본적인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마침 환경재단에서 ESG 리더십 과정을 국내 최초로 개설하여 사회 각계의 리더들과 함께 고민하고 솔루션을 찾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CEO들에게 적극 참여를 권합니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업의 역할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SG 리더십 과정'을 통해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 리더들이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밀도 있게 교류함으로써, ESG 경영을 촉진하는 제도 형성을 위한 부문간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세계 1등 기업”을 꿈꾸며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실행해야 하는 입장에서 “ESG 경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고민들을 해결하는 최고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 정치인들과 함께 국가의 미래를 논의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의 교훈을 나누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건준** BGF리테일 대표이사 사장

ESG는 잠깐의 유행이 아닙니다. 앞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질 것이고 ESG는 시대정신이 될 것입니다. <ESG 리더십 과정>을 통해 기업의 필수 생존 요건인 ESG를 탐구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ESG를 정립해나가는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구영**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 대표이사

본 과정은 각계각층의 리더들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등과 같은 간단치 않은 화두에 대해 지혜를 모으고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며 자신이 속한 조직과 세상의 변화를 도모하는 리더들에게 본 과정을 권해드립니다.

**이상봉** ㈜이상봉 대표

ESG는 미래다. 디자이너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ESG에 대한 호기심과 책임감으로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패션과 ESG의 연관성에 대한 강연이 커다란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위치에 있으시면 ESG는 우리에게 지속가능한 미래입니다. ESG 리더십 과정은 저에게 행운이었습니다.

**임지현** 카카오게임즈 부사장

명망 있는 강사님들의 열강을 매주 수강하면서 무심코 지나쳤던 환경과 다양성 이슈들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각 분야의 리더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원우들과 교류하며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것도 이 과정의 큰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능동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리더들에게 추천합니다.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국민 10명 중 9명은 'ESG 활동에 적극적인 기업의 제품이라면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구입할 의사가 있다', 기업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이 '주주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답하는 시대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길', ESG 리더십 과정 2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수석부회장

ESG 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 경영이념이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바로미터'입니다. ESG 리더십 과정을 통해 기업 리더로서 비재무적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식견을 얻게 된 것에 감사드리며 본 과정을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 Process

## ESG 리더십 과정 살펴보기



개강식



ESG 강연



현장 워크숍



원우 네트워크



수료식

# Graduates of program 가나다순

## 제1기 ESG 리더십 과정 수료자 명단 61명

강 태 선	BYN블랙야크 회장	이 건 준	BGF리테일 대표이사 사장
공 영 운	현대자동차 사장	이 구 영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 대표이사
권 준 학	NH농협은행 은행장	이 방 수	LG 사장
김 두 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이 상 봉	(주)이상봉 대표
김 두 식	법무법인(유) 세종 대표변호사	이 상 우	누리플랜그룹 유니슨HKR 회장
김 범 준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이 완 신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사장
김 선 희	매일유업 대표이사 사장	이 우 일	유니드 전무
김 성 주	BNK 금융지주 경제연구원 부원장	이 유 정	법무법인(유) 원 변호사
김 수 재	신성이엔지 부회장	이 준 길	법무법인(유) 지평 고문
김 승 환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 사장	이 창 구	신한자산운용 대표이사 사장
김 신	SK증권 대표이사	이 형 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회 위원장
김 종 량	학교법인 한양학원 이사장	임 지 현	카카오게임즈 부사장
김 학 동	포스코 사장	장 승 준	매일경제 대표이사 사장
김 한 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 몽 규	HDC 회장
김 흥 국	하림지주 회장	정 병 두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 도 봉	알루코 회장	정 성 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박 상 일	아주산업 대표이사	조 갑 주	이지스자산운용 대표이사
박 순 애	한국행정학회 회장	조 선 혜	지오영 회장
박 일 동	디섹 회장	조 성 현	만도 대표이사 총괄사장
백 영 재	한국필립모리스 대표이사 사장	조 순 옥	KB신용정보 대표이사
백 인 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이사회 의장	조 흥 래	한국투신운용 대표이사 사장
백 진 기	한독 대표이사	조 효 제	GS파워 사장
봉 옥	변호사 봉옥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진 재 승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사장
성 일 종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최 문 규	한신공영 대표이사
송 옥 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최 병 오	패션그룹형지 회장
신 우 성	금호피앤비화학 대표이사	최 열	환경재단 이사장
우 태 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최 현 만	미래에셋증권 수석부회장
육 현 표	삼성경제연구소 사장	최 현 수	깨끗한나라 사장
윤 관 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한 상 만	한국경영학회 차기 회장 / 성균관대학교 교수
윤 창 운	코오롱글로벌 대표이사 사장	홍 원 표	삼성SDS 사장
윤 흥 근	제너시스BBQ 회장		

## 정재계 리더들 “매경·환경재단 과정서 ESG 전략 배워요”

정몽규 HDC 그룹 회장 등 정재계 인사 속속 수강신청·해외 지속가능 경영 사례 등 10 주 동안 ESG 관련 강연



**강태선**  
BYN 블랙야크 회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



**김종량**  
한양대 이사장



**송옥주**  
국회 환노위원장



**육현표**  
삼성경제연구소 사장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이형희 위원장**  
SK수펙스추구협의회



**정몽규**  
HDC그룹 회장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



**최병오**  
패션그룹 형지 회장

매일경제가 지난해 말 NH 투자증권과 한국형 환경·책임·투명경영(ESG) 지수인 `MK-아이셀렉트 AI ESG지수`를 발표해 주목받았다. 여러 자산운용사가 ESG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경과 NH 투자증권은 앞으로 E·S·G 분야별로 특화된 지수도 내놓을 계획이다. 매경은 최근 지속가능 발전소의 인공지능 분석 모델을 통해 국내 100 대 기업의 ESG 를 평가했다. 국내 언론 중에서는 처음으로 기업들의 ESG 현주소를 분석한 `첫 성적표`라고 할 수 있다.

매경은 환경재단과 함께 국내 언론으로는 처음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ESG리더십과정`을 열었다. 이달 25일부터 10 주 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ESG 교육 프로그램에는 윤순진(서울대)·이재혁(고려대)·김종대(인하대)·오형나(경희대) 교수,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대사, 임성택 지평 대표변호사, 나석권 SK 사회적가치연구원장,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투자정책전문위원장, 최영권 우리자산운용 대표를 포함한 16 명의 스타 강사진이 나선다. 또 제주도 친환경 ESG 현장을 둘러보는 별도 워크숍에 건축가 승효상 이로재 대표가 동행하고, 수료식에는 문화재청장을 지낸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가 특별 강연한다.

이에 대한 오피니언 리더들의 관심도 뜨겁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 강태선 BYN블랙야크 회장,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 김홍국 하림 회장, 육현표 삼성경제연구소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이형희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사회적가치위원장, 이완신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사장, 김학동 포스코 사장, 권준학 NH 농협은행장, 신우성 금호퍼앤비화학 대표, 백진기 한독 대표, 진재승 유한킴벌리 대표, 김수재 신성이엔지 부회장, 이준길 지평 고문 등이 1 기 과정에 등록하기로 했다. 또한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두관·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무게감 있는 정치권 인사들도 동참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김종량 한양대 이사장, 한국행정학회 회장인 박순애 서울대 교수도 합류한다.

## ESG 혁신리더 61명 탄생... "장기 성장전략 찾았죠"

매경·환경재단 ESG리더십과정 ESG 열공한 CEO·국회의원들 10주 대장정 마치고 1기 수료  
원우회 초대회장 맡은 최병오 "중견기업도 ESG경영은 필수" 9월 9일부터 2기 과정 개강



국내 첫 'C레벨(최고경영자)' 대상의 ESG(환경·책임·투명경영) 교육 프로그램인 'ESG 리더십 과정'에서 61명의 혁신리더가 배출됐다.

매일경제·환경재단이 공동 주최한 'ESG 리더십 과정' 1기 수료식이 지난 3일 서울 성북구 우리옛돌박물관에서 열렸다. 수료생은 정몽규 HDC그룹 회장,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 강태선 BYN블랙야크 회장, 박도봉 알루코그룹 회장, 최문규 한신공영 대표 등 오너 경영인과 육현표 삼성경제연구소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 이방수 (주)LG 사장 등 총 61명이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과 정성호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도 교육과정을 끝까지 완수했다.

ESG 리더십 과정 마지막 날 강연은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주제로 유흥준 명지대 미술사학과 석좌교수가 맡았다. 유교수는 "한반도에서 일어난 사건·사고의 역사가 아니라 동아시아 역사 흐름 속에서 바라보는 세계사적 시각을 가질 때 우리 정체성이 확연히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트렌드 속에서 한국 ESG의 좌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ESG 경영 흐름과도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

최병오 회장은 "우리 같은 중견기업은 그간 ESG에 소홀했는데, 리더십 과정을 통해 ESG를 배우게 된 것은 큰 소득"이라며 "특히 종업원 복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패션그룹형지는 지난 5월 점심시간을 이틀에 한 번꼴로 30분 더 연장했으며 임직원 절반을 여성으로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 회장은 "ESG 경영을 통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기업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최 회장은 이번 과정의 원우회 회장을 맡게 됐다.

이형희 SV위원장은 "리스크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 회피 경향이 늘어나면서 ESG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SK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ESG 핵심 지표를 선정하고 장기적인 개선 목표와 과제 도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해양 엔지니어링 회사인 디섹의 박일동 회장은 매주 목요일마다 부산과 서울을 오가며 전 교육과정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기후위기 대응 등 많은 것을 배웠다"며 "동문 60여 명을 얻은 건 큰 자산"이라고 말했다.

장승준 매일경제신문 대표는 "ESG 리더십 과정 1기 수료생들은 ESG 경영 현장의 선구자"라며 "10주간의 학습 성과를 바탕으로 ESG 현장에서 바람직한 해법과 성과를 도출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은 "국회의원과 최고경영자(CEO)들이 이처럼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모습은 처음 봤다"며 "ESG는 인류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전했다.

매일경제와 환경재단은 오는 9월 9일부터 매주 목요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총 10주 일정으로 2기 'ESG 리더십 과정'을 시작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면서 기후위기 시대에 국가 미래를 결정하는 ESG 전략, 글로벌 ESG 규제 흐름, 국내외 ESG 경영 우수 사례, ESG 평가 기준, 지속가능 금융,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등을 다룬다. 또한 ESG 산업 현장을 찾아가는 워크숍을 통해 참석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학계, 법조, 자본시장, 기업, 회계 분야 스타 강사진이 대거 참여한다. ESG 리더십 과정 수강 대상은 기업 대표와 금융기관장, 대학 총장, 정치인, 법조계 대표 등이다.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